

# 하멜標流記의 科學史的 意義



〈上〉

韓 相 復

〈海洋開發研·先任研究員〉

## 1. 머리말

서양의 문명과 우리나라의 문명이 만나는 첫 단계에서 바다가 꽤 중요한 뜻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 10여년간 우리나라의 海洋學史 자료를 모아온 필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나무의 조그만 가지에 해당하는 분야를 살펴 볼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무 등결과 뿌리에도 너무나 깊숙히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海洋學史는 우리나라 近代化 과정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이 씨를 뿌린 사람은 바다를 거쳐 세력을 팽창해 오는 외국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에는 어떠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8세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서양사람들의 안내서 역할을 한 것이 “하멜 표류기”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미 이병도 박사에 의하여 여러 번 번역 출판 되었으므로 상세한 소개를 피하고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범위 안에서 과학사적인 意味를 찾아 보고자 한다.

## 2. “하멜 漂流記” 以前の 韓國觀

하멜의 표류기가 출판된 1668년 이전에 서양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가 쓴 東

方見聞錄을 토대로 해서 중국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에 금이 많이 산출되고 있다고만 막연히 믿을 뿐이었다. (Ricci, 1931)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출생했는데 1270년 상인이며 탐험가인 아버지 니콜로(Niccolo)와 숙부 마테오(Matteo)를 따라 동방여행길에 올랐다. 실크 로드(Silk Road)를 따라 중국에와서 17년간 元朝를 섬기다가 香料航路라고 일컫는 南海航路로 1295년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26년동안의 여행기록을 1298년부터 약 1년간 口述하여 서양사람들에게 동양의 사정을 알리고 특히 중국 동쪽에는 금이 많이 나 국왕의 궁전 지붕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전해서 황금사상에 젖어있는 상인들의 호기심을 자극 하였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르네상스 이후 칼과 저울을 들고 아시아로 진출하는 서양인들의 안내서가 되었다.

이때의 지리학자들은 동방견문록을 근거로 해서 세계지도의 아시아 부분을 상상으로 그려 넣었는데 現存하는 지도중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반도가 맨 처음 나타난 것은 1558년에 제작된 호멘(D. Homen)의 지도이고 이어서 벨호(B. Velho)는 1562년에 좀더 길쭉한 반도의 형태를 그려 넣고 지명기입이 없이 아시아 대륙과 일본 섬 사이에 있는 반도로 매우 품질이 좋은 금이 산출된다고 설명을 붙였다.

우리나라가 좁고 기다란 반도로 Coreia 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는 1594년 네델란드의 플란치오(Petro Plancio)가 만든 세계지도가 처음인 것으로 믿어진다.

이 무렵에 우리의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예수회(The Society of Jesus)에 속하는 천주교 신부들이 포교를 하면서 서양문화를 보급시키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543년 플트갈 선박이 種子島에 漂着한 이래로 천주교 신부들이 포교를 시작하였으며 1549년에는 예수회 창시자의 한사람인 자비에르(Francis Xavier)가 규슈에 도착할 정도였다.

임진왜란 때에 스페인 출신의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 1551-1661) 신부는 1593년에서 1594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일본군의 중군신부로 우리나라에 와서 복무하였고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나 널리 알려지지는 못하였다.

중국에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라는 예수회 소속의 신부가 1583년에 명나라에 입국하였다. 그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세계지리와 자연과학에 관한 지식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서 명나라 학자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으며 드디어 神宗은 그에게 1601년 포교권을 부여하기에 이르렀고 清朝에 이르기까지 이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

플트갈과 스페인의 상인들은 예수회 선교사들의 해외활동바를 부담해 주면서 대신 포교지역에서의 무역권을 로마 교황으로부터 얻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향료무역과 아시아의 해운업은 이들에 의하여 독점되어 오다가 1588년 무적함대가 패배한 뒤로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이베리아반도에서 발단된 政教一致제도를 붕괴시킨 네델란드가 이어서 동양의 무역권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예수회 소속의 신부들에 의하여 천주교가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전과같이 이들의 관심권 밖에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종교에 집착하지 않는 네델란드 세력만을 남겨두고 예수회소속의 선교사와 그들뒤에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식민주의자 및 예수회와 결탁한 상인들을 추방하여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는 계기를 만

들었다.

네델란드 사람들은 스페인과 로마교회로부터 독립한 뒤 상업자본주의에 이르는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였으며 이베리아 문명과는 달리 선구자만 정신을 집중시키고 영혼문제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서 무역흑자를 내기위해서라면 거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용의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네델란드 사람들을 통하여 일본은 17세기 이후 西洋人이 두렵거나 멸시할 필요도 없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이 전달한 새로운 서양의 사상과 지식이 지배계급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고 소위 蘭學이라는 이름으로 日本에 土着化 될 수 있어서 東洋의 과정중 중국대륙과 다른길을 걷게 되었다.

스페인과 플트갈 상인들로부터 시작되어 네델란드 무역상들에게 이어진 시기에 서양사람들은 바다를 이용한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무역권은 대만과 나가사키 항로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당시의 그들에게는 관심권 밖에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儒學사상에 젖은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새로운 흐름을 南蠻이라는 이름으로 백안시하고 오로지 북쪽 중국대륙으로부터 전수되는 흐름만을 전통적으로 중요시 하였다.

대만과 나가사키항로 북방에 위치한 제주도는 일찌기 벨호의 지도에도 반도남단에 조그만 섬으로 표시되어 있고 해적섬(Ilha de Ladrone s)이라고 플트갈말로 여러 해도에 표기되어 왔다. 하멜표류기를 가장 충실하게 편집 간행한 회팅크(Hoetink, 1920)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가 하멜 이전에 켈파트(Quelpaert)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사용된 시기는 1648년이었다고 한다.

제주도에 해당하는 섬 이름이 어떤 연유로 해적섬이라는 명에스럽지 못한 명칭으로 불리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네델란드 무역상이 진출하기 이전 플트갈 상인들께 의하여 명명되었다는것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켈파트라는 네델란드 말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정확한 출처도

현재로서는 알길이 없지만 아마도 네델란드 무역상들이 태풍에 의하여 제주도 서남단에 있는 加波島에 漂流해 왔다가 이 섬의 이름을 따서 Quelpaert라고 부르게 된것이 아닐까하는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

### 3. 네델란드 무역선의 漂着

스페로우 호크(Sparrow Hawk)라는 제법 익살스런 이름을 가진 네델란드 무역선이 일본을 향해 대만을 떠난것은 1653년 7월 30일 이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이 배는 늦어도 9월말까지는 화란의 동인도회사 무역관이 있는 나가사끼(長崎) 바로 앞 바다 데지마(出島)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배는 데지마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대만으로 되돌아 가지도 않았다. 그냥 없어지고 만것이다. 몇달이 지나도록 이 배로부터 아무런 소식이나 보고가 없자 동인도회사 간부들은 희망을 버리게 되었고 마침내는 1654년 10월에 배와 화물들을 장부에서 삭제하고 선원 64명의 실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뜻밖에도 1666년 9월 14일에 이들중 8명이 나가사끼에 나타났다. 그들은 조선옷을 입고 있었으며 작고 초라한 조선의 어선을 타고 열흘전에 조선 남해안에 있는 조그만 항구를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얘기하였다. 오랫동안 실종된것으로 간주되어왔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Sparrow Hawk호 선원이 다시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미지의 세계인 조선의 사정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무역관 간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13년전인 1653년 8월 15일 밤에 태풍을 만나 제주도에 표착했고 본토에 이송되어 조선국왕의 친위대 소총사수로 일하던중 淸나라

사신에게 본국으로 보내줄 것을 간청하다가 실패한후 서울에서 추방되어 조선의 남쪽 전라도에서 10년간 고생을 하면서 푼푼이 모은 돈으로 작은 어선을 구입해서 최초의 도주에 성공하였으며 조선에서는 노예생활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Sparrow Hawk호에 타고 있던 64명중에서 28명은 배가 난파할때에 익사하였고 생존자 36명중에서 20명은 그동안 죽었으며 아직 8명은 조선에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북부 네델란드 리프출신인 안

얀세 벨테브르(Jan Janse Weltevree, 朴燕)라는 동포 한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1627년 우베르켈크호를 타고 있다가 조선에 표착하여 조선군의 정식 군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이는 70세쯤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했다.

일본으로 탈출한 8명의 지휘자인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 1630-1692)은 Sparrow Hawk호의 서기로 근무했었는데 그가 나가사끼에 머무는 동안 즉 1666년 9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사이에 제주도 표착에서부터 13년동안 억류생활을 하다가 나가사끼로 도망해 올때까지 겪은 일들을 기행문으로 적고 또 조선에 관한 인문지리적인 고찰도 생각나는대로 썼다. 나가사끼에서 쓰여진 원고는 첫 탈출자들이 고국에 도착한 1668년에 출판되었는데 하멜 자신은 바타비아에 남아서 조선 억류기간동안의 급료문제 때문에 1670년까지는 고향에 돌아간것 같지 않으며 그는 1692년까지 살다가 고향인 네델란드의 호루쿰에서 죽었다. 그리고 하멜의 기록에 아직 조선에 잔류했던 8명의 Sparrow Hawk호 선원중 1명은 1667년중에 사망하고 나머지 7명은 조선과 일본의 외교교섭에 의하여 1668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Ledyard, 1971)

